



달맞이꽃 너머 한라산이 한눈에... 맑은 날씨를 보인 지난 13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돌담 아래 핀 달맞이꽃 너머 한라산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UAM 상용화 사업 '위기국면'

<도심항공교통>

도, 2028년 완공 목표로 성산포항에 이착륙장 추진
기체 제작사 미국 오버에어 자금난에 사실상 파산
관련 사업 투자하던 국내 대기업들 시장 철수 수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UAM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맺은 해외 UAM 기체 제작사 한 곳이 파산한데 이어 개발 자금을 대던 국내 대기업들도 UAM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 44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도와 한화시스템, 오버에어가 체결한 UAM 산업 육성 협력 업무협약이 지난해 10월 해지됐다고 밝혔다.

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28년까지 협력하는 조건으로 체결됐지만 한화시스템, 오버에어가 UAM 기체 개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조기 해지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체 제작사인 미국 오버에어는 현재 자금난으로 사실상 파산한 상태다. 또 오버에어에 1400억원 가량을 투자하며 공동 개발에 나섰던 한화그룹도 해당 회사가 실제 운항에 필요한 미국 연방항공청 기체 인증에 실패하고 자금난에 처하자 투자를 중단했다.

또다른 미국 내 UAM 기체 제조 업체인 조비 에비에이션도 미국 연

방항공청 인증을 못 받아 해당 회사의 국내 투자자였던 SK텔레콤이 보유하던 지분을 대거 매각하는 등 사실상 UAM 시장에서 철수했다. 제주도는 UAM 상용화를 위해 지난 2022년 SK텔레콤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주도는 오버에어 측은 파산했지만 조비 에비에이션의 경우 미국 연방항공청 인증 절차만 지연되고 있을 뿐 해당 회사로부터 기체를 조달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총 사업비 298억원을 투입해 성산포항에 UAM이 뜨고 내릴 버티포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기본 설계 단계로 완공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제주도는 버티포트가 완공되면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5인승 에

어택시를 도입해 UAM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조비 에비에이션 지분을 매각했지만, 이는 회사 차원의 전략적 선택으로 알고 있다"며 "또 오버에어와 달리 조비 에비에이션은 자금난을 겪는 상태 아니고 오히려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미국 항공청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기획예산처는 UAM 상용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회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도 "이용할 수 있는 UAM 기체도 없는데 인프라만 너무 서둘러 조성하는 것 아니냐"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 5월 기준 '제주 토지거래 현황' 발표

성산읍과 주변 남원·구좌 토지거래 ↑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주변
지난 5월부터 거래 증가세

최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가 풀리면서 주변 토지에 대한 외지인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일대에서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한 토지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5월말 기준 '토지거래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제주지역 토지거래량(신탁 제외)은 제주시 6159필지·409만6000㎡, 서귀포시 3206필지·281만6000㎡ 등 9365필지·691만2000㎡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93필지·669만9000㎡에 비해 증가율로 보면 필지수는 6.51%, 면적은 3.18%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 5월 한달간 1916필지·178만6000㎡에 대한 토지거래가 제주에서 이뤄졌다. 전달인 4월 2221필지·152만5000㎡에 비해 필지수는 13.73% 감소했으나 면적에서는 17.07%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 4월 제2공항 추진으로 10여 년 동안 묶였던 성산읍의 토

지거래 규제가 공항 예정부지(5.5km)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다. 이에 5월초부터 토지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성산읍과 인근 지역인 남원읍과 구좌읍 일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면적이 다른 지역에 견줘 큰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규모별로 보면 330㎡(100평 이하)가 1289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큰 면적인 2000~5000㎡, 5000㎡ 초과~1만㎡ 이하 토지거래에선 성산읍·남원읍과 구좌읍 일대 토지에 집중됐다. 2000~5000㎡ 327필지 중 제주시에선 구좌읍 200필지, 서귀포에선 59필지 가운데 성산읍이 6필지를 차지했다. 성산읍은 5000㎡ 초과 1만㎡ 이하에서도 5필지로 가장 많았고 1만㎡ 초과~3만3000㎡ 이하도 2필지나 있었다. 다른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인접한 남원읍 토지거래도 많았다.

지역별로 투자자의 40~70%가량은 서울 등 타지역 거주자로 파악되고 있다. 성산읍 119필지 중 타지역 거주자가 매입한 필지는 78필지(서울 51, 기타 27)에 이른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에 고향사랑 기부하고 여행지원금 받으세요"

도 '10만원 이상' 250명 추첨

제주특별자치도는 10만원 이상 제주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여행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행사 기간 10만원 이상 기부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50명에게 '탐나는진' 1만원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탐나는진' 실물카드 발급 후 사용하거나 쿼일(QR)방식으로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제주 고향사랑기부자는 '탐나는 제주패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탐나는 제주패스'를 이용하면 공영·민영 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입장, 한라산 탐방 예약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연속 기부 시에는 동반자까지 무료입장 혜택이 확대된다.

한편 제주 고향사랑기부회는 '고향사랑e음' '웰로' 'NH올원뱅크' '신한SOL뱅크' 등 온라인 채널과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경찰, JDC 면세점 사용 위조 외화 수사 착수... 4면 / 제주, 노인학대 매년 100건 이상 발생... 5면

빛나는 제주

함께 뛰는 대한민국!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2026. 10. 16.~ 10. 22.

제46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2026. 9. 11.~ 9.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